

원자력 정비 핵심 검사 기술 일본 수출

도의순 |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ISI팀장



서언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제14회 원자력기술상 대상이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기에 앞서 한편으로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보다도 유능하고 우수한 분들이 우리 원자력계에 많은데 그 분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제게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자만하지 말고 더욱 더 겸손하게 정진하라는 당부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약력을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발전 정비 전문회사인 당시 한전보수(주)에

입사하여 월성사업소의 중수로 정비 분야에서 처음 원자력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고리사업소 터빈과장, 월성사업소 설비검사과장을 거쳐 현재는 원자력정비기술센터에서 ISI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 만큼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 또한 우리 국내의 현실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검사 방법과 규제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들은 거의 외국 선진사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술까지도 외국 회사에 의존해야 했기에 발전소 운영의 중요한 축인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회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저희 회사는 '세계 제일의 정비 전문 회사'를 목표로 해외 제작사로의 정비 엔지니어 육성